

[Economist] 박상현 2122-9196 shpark@hi-ib.com / 류진이 2122-9210 jinlee@hi-ib.com

미국 소비둔화 리스크 확대 중

그림1. 고금리 및 고유가가 미국 소비사이클 둔화 압력을 높일 전망이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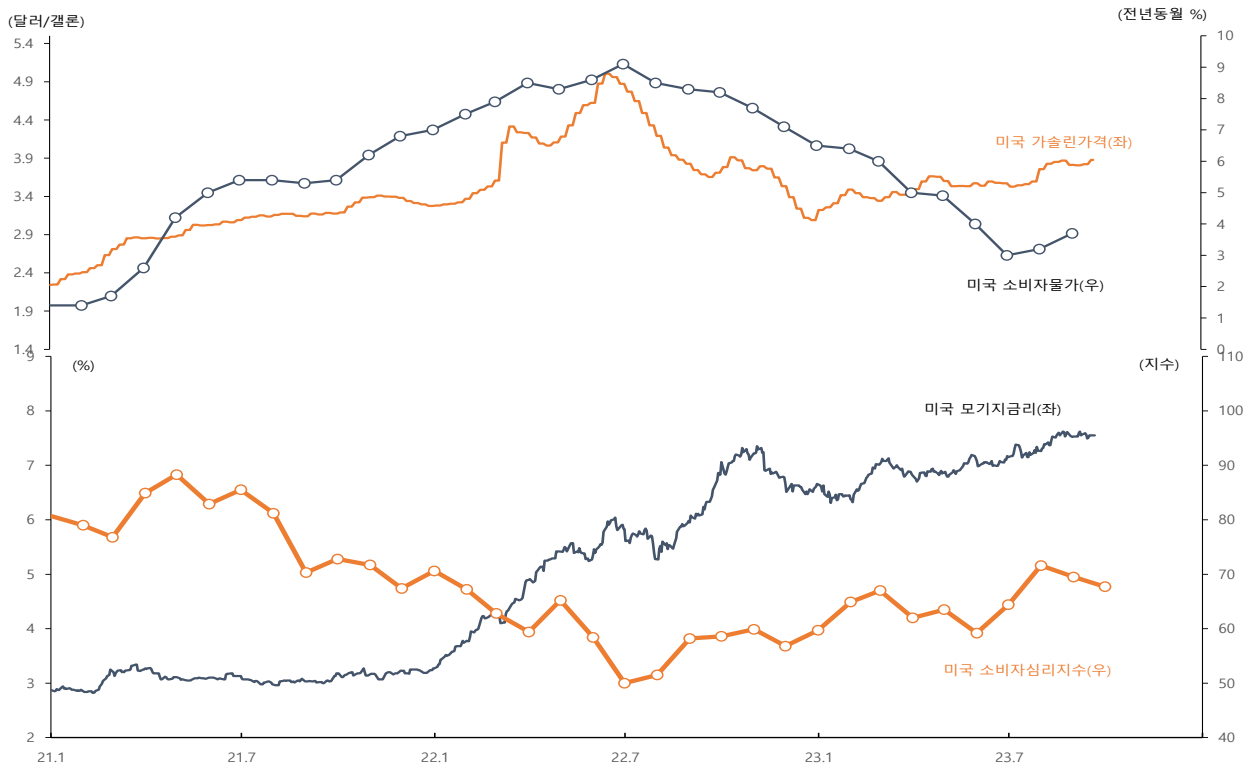


그림2. 고금리 여파로 주택 용자 신청 건수 둔화세가 지속 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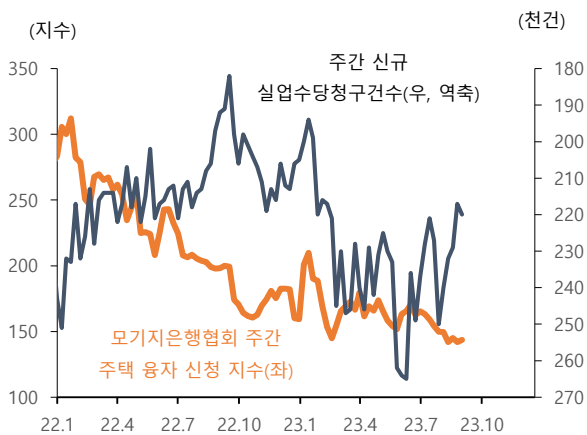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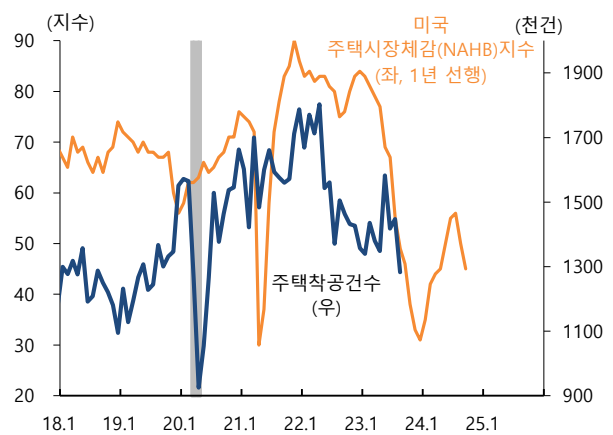


그림3. 7월 이후 미국 주택경기 둔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음



자료: Bloomberg, 하이투자증권 리서치본부

■ 모기지 금리와 가솔린 가격이 소비 제약 요인

- 모기지 금리 급등으로 흔들리는 주택시장

- 건조하던 미국 소비사이클에 둔화 압력이 확대되고 있음. 우선 모기지 금리 급등으로 주택시장 부진이 소비를 제약할 가능성이 커짐
- 모기지 금리가 7% 후반대로 급등하면서 미국 주택지표 둔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음. 대표적으로 미국 주택시장 체감지표인 NAHB 지수의 경우 9월 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45를 기록함. 지난 7월 동 지수가 56이었음을 고려할 때 주택시장 체감경기가 빠르게 식고 있음을 시사함. 동 지표가 미국 경기의 주요 선행지표 중에 하나임을 고려할 때 주택경기의 부진이 소비 둔화를 통해 미국 경기에도 부담을 줄 공산이 커진 것임
- 주택시장 부진은 주택착공건수와 주택 용자신청지수에서도 확인되고 있음. 8월 신규 주택착공건수는 전월대비 -11.3% 급감한 128.3만건을 기록함. 8월 신규 주택착공건수 20년 6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임. 더욱이 주택 용자 건수 감소세 역시 지속되는 등 주택경기가 빠르게 냉각되는 분위기임
- 고용시장이 여전히 건조하다고 하지만 고금리, 즉 높은 모기지 금리수준이 주택경기 둔화 압력을 확대시키고 있는 것임

- 가솔린 가격 상승세도 소비에 부담

- 유가가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서면서 가솔린 가격도 갤론당 3.9달러로 4달러에 육박함. 연초 3달러 초반이었던 가솔린 가격 수준 대비 약 20% 이상 상승한 것임. 이자 부담 증가에 유류 지출마저 크게 증가한 상황임
- 가솔린 가격에 민감한 미국 소비 사이클 특성상 소비 둔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음. 이를 반영하듯 반등하던 미국 소비자심리가 2개월 연속 둔화되고 있음은 소비 둔화 가능성을 예고하는 시그널임

■ 미국 경기도 고금리, 고유가 영역에 진입

- 고금리 및 고유가가 4분기부터 미국 소비 및 경기 둔화 리스크로 대두

- 강한 고용시장과 투자사이클로 미국 경기가 예상보다 강한 연착륙 기조를 유지했지만 고금리(=모기지 금리)와 고유가 부담으로 경기 모멘텀이 4분기들면서 약화될 가능성이 커짐. 더욱이 탄탄하던 고용시장마저 정점을 지나고 있어 소비사이클의 둔화 압력이 커질 공산이 있음

- 주택경기 둔화 현상은 미 연준의 금리인상 사이클 종료 압력

- 물가 불확실성 등으로 미 연준의 금리인상 사이클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지만 주택경기의 가파른 둔화 현상 등은 미 연준의 금리인상 사이클 종료 압력으로 작용할 공산이 높음
- 자칫 고금리 현상이 미국 경기 경착륙은 물론 주택경기 둔화로 신용리스크를 재소환할 여지가 있기 때문임

- 물가와 경기사이에서 미 연준의 고민이 깊어지는 국면에 진입함

Compliance notice

▶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및 제 3자에게 E-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.

▶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 (작성자 : 박상현, 류진이)

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, 따라서,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명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,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,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.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.